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우걸
시조시인·한국시조시인협회장

대구 팔공산 부근의 후배 시인택에서 야생화를 구경하고 온 적이 있다. 7월 말의 정원은 스산한 느낌이였다. 담장을 수놓고 있는 능소화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상사화나 도라지꽃, 산나리꽃을 몇 송이 보았을 뿐 만개한 무더기 꽃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화원의 주인은 40여 년 야생화를 가꾸은 고수답게 야단스런 수사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 모든 꽃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 화원은 넓이의 한계가 있어 필요한 것을 그 꽃의 특성에 맞게 심고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는 것, 재배할 자신이 없는 꽃을 아무 곳에서나 구해 와서 심어놓고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잔잔하게 설명했다.

들꺽나무는 물을 많이 요구하고, 산수국은 수경이 되고나면 돌아왔고, 능소화는 독

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 식물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 양지를 좋아하는 꽃이 있고, 음지에서도 잘 피는 꽃이 있다. 계절 따라 피는 시기도, 색깔도, 모양도 다른 것이 꽃이다.

돌아올 때 내 등 뒤에 흘러던 말이 지금도 여운으로 남아 있다. 옛날에는 분에 담아 키워서 가끔 선물로 드렸지만 지금은 줄 수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였다. 왜 주고 싶지 않다고 했을까?

먼저 자기만큼 꽃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애지중지 키운 꽃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화원이 철저한 계획 하에 짜여 진 것이어서 어느 꽃 하나도 빠져나가면 전체의 조화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너무도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자꾸 되새겨 진다. 가령 우리 한국시단에 시인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아서 좋을 수가 있다. 다만 그 많은 시인들이 존재해야할 이유를 증명할 만한 개성적인 작품을 쓰고 있는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 경우는 화가에게도, 음악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기준이다.

대가들의 흥내를 내는데 평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 아예 시인이나 화가, 음악가라고 하

기엔 부끄러울 만큼 못 미치는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만의 향기를 지닌 작품을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자명한 이치를 다시 되뇌며 곰곰이 주위를 살펴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건 개성의 발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대세처럼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대학의 특성화란 대학의 개성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다. 잘 되고 있는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각 지역마다 제법 수준 높은 대학들이 있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는 세인들의 인식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부동의 명문대가 우수학생을 독점해 왔지만, 내실 면에서 그다지 발전한 것 같지 않다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취직 안 되는 학과들이 퇴출되고 있다. 철학과, 독문과, 불문과에서 드디어 국문과가 지 겸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종전 싫건 여러 사정을 살펴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까지 안정을 찾기 어렵다. 로스쿨, 의대학원의 출현은 그 영향력이 가히 태풍급이다. 바람직한가? 이런 세태에서 열심히 한 길로만 가면 된다고 충고할들 묵묵히 자신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최근에는 지자체별 문화행사도 그렇다. 강진의 청자축제, 서귀포 아예 페스티벌, 진

주 유등축제, 밀양 연극제, 경포 여름바다 예술제, 대관령 국제음악제, 광주 비엔날레, 진주 소리문화축제 등 지역의 여건과 자생적 노력으로 성공한 문화행사가 많다. 이런 행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행사에도 주목해야 한다. 부산 국제영화제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등은 그런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 그 가치야말로 인생의 풍요로움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서열화를 부추긴다. 획일화를 부추긴다.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리는 학생에게도 성적이 우수하면 법대를 가게하고,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도 의대 지망을 강요한다. 결국은 권력을 쥐고 돈을 버는 학과를 학생에게 강요하여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막는다.

도시 문화행사에도 내실 있는 행사,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보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사, 인기 있는 분야의 행사를 선호하게 된다. 여기에서 획일화의 무서운 부작용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의 미래를 꿈꾸며 설계할 학생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다양한 개성으로 풍요로워질 도시문화가 멀어진다.

문득 야생화를 그 특성에 따라 심고 가꾸던 팔공산 그 화원의 주인이 더 크게 떠오른다.

완치 소견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환경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치료제가 없던 시절도 있었고, 약제 내성에 대한 우려로 장기치료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낮은 내성발현율, 안전성 등을 입증한 치료제가 나와 있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치료제는 특히 임상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환경에서도 아시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이고 있어 안심하고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다.

아름다운 도자기는 화장이 오랜 시간 내내거며 가마불 옆을 지켜 얻은 값진 결과물이다. 만성 B형 간염 관리도 마찬가지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인식하고 인내를 가지고 살피고 또 살피자.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정진감과 함께 꾸준히 질환을 관리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

의료칼럼

평생관리해야 할 B형 간염



조성범
하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얼마 전 조선시대 도자기 제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종영했다. 필자는 이 드라마를 통해 도자기 제조과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자기는 몰래, 건조, 장식, 초벌·재벌구이 등 세분화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도공뿐 아니라 각 과정을 맡은 장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자기의 완성을 위해 무려 20~30여 시간 가마불을 살피는 화장의 역할이 특히 눈에 띄었다. 화장의 인내가 없다면 아름다운 자기의 탄생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기고



권수혁
광주지방보달청장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찬란한 가사문화와 판소리, 한국화의 거장을 배출한 예향(藝鄕), 임병양란의 구국활동과 항일의병활동에 앞장섰던 의향(義鄕), 감칠맛 나고 삭은 맛, 푸짐한 먹을거리로 대표되는 미향(味鄕)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은 앞으로도 계승·발전시켜야 할에 틀림없다.

필자는 지난해 말 우리 지역 경제부처 기관장으로 부임한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포부가 생겼다. 예향, 의향, 미향의 고장으로 불리는 우리 지역을 더불어 잘살고 풍요로운 부향(富鄕)의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할까?

농공단지와 부향(富鄕)의 꿈

우선,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지원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액 총액은 48조9000억 여원 가량으로 국내 총생산액 1272조 원의 3.8%, 수출액 총액은 116억여 달러로 국내 총수출액 5478억 달러의 2.1% 수준을 달성했다. 고용인원도 14만여 명에 달해 농공단지가 국가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지역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업체가 901개사로 전국 총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달 수(5475개)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8개 광역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연간 생산액과 수출액은 각각 3조 7000억 원, 11억7000만 달러 가량으로 전국 대비 각각 7.5%, 10%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인원도 1만4000여 명으로 전국대비 10.1% 선에 머물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이 많은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보 등의 문제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가동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생산액과 수출액, 고용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조달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지원을 ‘2013년도 중점 추진업무’로 정하고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 간담회,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지방청 최초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본청에 건의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기구로 가칭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립운영 하는 것이다. 기존에 농공단지 지원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서 서로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책 지원에 관한 것이다. 조달청, (사)정부조달우수제품 협회, 지방조달청이 함께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한 무안군 생활 도자기와 같이 지역특화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등 지역향토산업 관련 제품들을 다수공급자 계약(MAS) 신상품으로 개발해 등록추진 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위해 적성검사·교육 강화를

성 범죄가 많은 요즘 여성들이 밤 늦게 택시를 탈 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아버지 기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요즘 밤 늦게 택시를 타다 보면 고맙게도 연세가 지긋하신 택시기사님들을 자주 만난다. 택시운전 기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고령화 현상과 평균수명이 늘고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 택시를 하

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 같다.

하지만 한번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연세가 거의 60대 중반쯤 돼보이시는 기사님과 함께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두운 길에서 갑자기 커브를 틀기 위해 방향을 꺾으려는 차가 담벼락에 부딪칠 뻔 했다. 다행히 다행히 밑에 있던 쓰레기통을 밟아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기사님이나 승객인 나는 심편

감수 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른이다 보

니 시력과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다른 고령운전자분들도 그만큼 사고나 사고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운전자분들을 위해 어두운 밤에도 표지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야광으로 만들고, 도로표지판의 디자인 역시 고령운전자들의 식별을 배려해서 눈에 더 잘 띄게 해줄 필요가 있다. 또 7년마다 시력, 청력 등의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 운전적합성 여부를 판단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고령운전자

들에게는 젊은 연령층보다 적성검사를 더

짧은 기간마다 받게 했으면 한다. 아울러 검사분야의 폭도 넓혀 외국과 같이 시험관제, 신경계, 호흡기 신진대사까지 검사하고 교육과정도 교통사고 원인과 유형을 철저히 분석해 해당 연령대의 운전자들에게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집중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은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면허적성검사를 검사항목이 세분화돼 있고 교육과정도 다양하다고 들었다.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社說

KTX에까지 ‘짜퉁부품’이 사용됐다니

원전에 이어 KTX에도 불량 부품들이 납품돼 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도대체 ‘짜퉁비리’의 끝은 어디인지 말문이 막힌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 교통수단에 위조된 부품이 사용됐다는 것은 대형사고 위험성을 안고 질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용객 안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마저 치민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국산을 수입품으로,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KTX에 납품한 업체 6곳의 관계자 등 14명(철도공사 임직원 2명 포함)을 사기, 공문서 번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KTX에 납품한 부품은 모두 29개 품목, 1만7521개에 달한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부품 대부분이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차의 특성상 한 차량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차량이나 비상 제동장치가 작동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 범죄발생 전국 1위, 경찰은 뭐하냐

광주시의 치안 부재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범죄 발생건수가 최다인데도 경찰관 수나 방법 CCTV가 태부족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이 최근 내놓은 ‘전국 치안환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6개월간 인구 1만 명 당 광주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건수는 487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216개 지자체 범죄 발생건수도 광주 동구와 서구가 각각 716.7건(5위), 532.3건(10위)으로 상위에 올랐다.

특히 동구는 성폭력 발생 건수가 전국 5위, 광산구는 치안 제감 안전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의 성폭력 건수는 12.7건으로 전국 평균의 4.1건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다. 광주경찰이 급난 한 해 4대 악 척결 등을 내세우며 강력한 치안활동을 벌여왔다는 점

에서 ‘말뼌’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불명예는 무엇보다 치안에 방을 위한 경찰관 수나 방법 CCTV가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단위면적 1km²당 광주지역 경찰관 수는 6.0명으로 대도시 평균 기준 12.3명보다 무려 6.3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CCTV 역시 전국 평균이 7.4대인데 반해 광주는 1.5대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이를 적극 건의해 치안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광산경찰서가 지난 2009년 경찰관 30명 증원한 결과, 범죄발생건수가 306건이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CTV 등 감시장비 보강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범죄예방 효과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경찰과 지자체는 서둘러 확보에 나서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도 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다.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빠뜨리면 둘 다 해엄쳐서 물으로 나온다. 말이 해엄치는 속도가 훨씬 빨라 거의 소의 두배의 속도로 땅을 밟는데 네발 달린 말이 해엄치는 실력에 허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흥수로 불어난 빠른 물에 소와 말이 빠진다면 소는 살아남지만 말은 익사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말은 자신이 해엄을 잘치기 때문에 강한 물살이 자신을 떠미는 데 대항해서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게 된다. 1m 전진하고 물살에 밀려 1m 후퇴를 반복하며 20여분 땀몰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익사한다고 한다.

반면 소는 절대 물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동등 떠내려 가면서 10m 떠내려 가는 가운데 1m씩 강가로 접근해 어느 강가의 얕은 모래 밭에 발이 닿게 되고 결국 엉금엉금 기어나오게 된다.

해엄을 잘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힘이 빠져 익사하고, 말 보다 훨씬 해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 조금씩 강가로 나와 목숨을 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말이 물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인데 방종하게 행동하다 결국 제 궤에 쫓겨 된다는 것이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교훈이다.

환경을 제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벌어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볼품’이라는 단어가 마치 트레이드마크가 돼 버렸다. 무엇이든지 감압과 밀어부치기 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는 부작용과 반작용이 밀어부친 강도만큼 세진다. 순응하는 법을 박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배워야 한다.

말처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는 오히려, 소처럼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 산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교훈을 되새겨 할 때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제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 2200-9600 독자서비스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